

지방자치·종합

D-51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별 판세

차 호남·충청서... 文-安 PK서 상승세

차 호남 지지율 20%대... 文-安 10%P 떨어져

연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지역 쟁점전을 비롯한 대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역별 지지율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R&R 조사를 살펴보면 박·안 후보 양자대결에서의 서울지역 지지율은 박 후보의 경우 42.5%로 소폭 하락(0.5%포인트)한 반면, 안 후보는 50.9%로 6.1%포인트 뛰었다.

리서치앤리서치(R&R)의 지난달 19~21일과 이달 23~25일 지역별 양자대결 결과, 한국갤럽의 지난달 17~21일과 이달 22~24일 지역별 양자대결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판세를 비교·분석해본다.

<부산출신 文-安 PK 상승세>여당의 텃밭으로 꼽혀온 PK에서 문·안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박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는 모양새다.

보의 PK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57.6%에서 49.4%로 떨어진 반면, 문 후보는 30.6%에서 37.4%로 6.8%포인트 올랐다.

박·안 후보의 양자대결 결과도 마찬가지로 박 후보는 54.3%에서 50.1%로 하락했고 안 후보는 36.3%에서 40.2%로 상승했다.

<차, 충청서 합당효과>박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R&R의 충청지역 양자대결 결과, 박·안 후보의 맞대결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47.6%에서 52.0%로 4.4%포인트 올랐고 안 후보의 지지율은 38.8%에서 38.1%로 0.7%포인트 내려갔다.

은 40%에서 36%로 하향조정됐다.

<호남 변수 주목>차 상승곡선=호남 표심은 이번 대선의 관전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불모지이자, 민주당의 표밭으로 불렸던 호남에서 박 후보가 '지지율 20%'대에 접어들어 대박을 노리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박 후보는 문·안 후보와의 각각 양자대결에서 10%대에 머물던 지지율을 20%대로 끌어올렸다.

'새해소원 명박急死'

김광진 리트윗 논란

"북한이 더 믿음이 가" 글도

순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사진) 의원이 올 초 현지 대통령의 '급사(急死)를 언급한 글을 리트윗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해소원은 뭐가요, 명박 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꼭 동의해서 '알리'(리트윗)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확인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월1일에는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간 비밀 접촉과 관련, '北 비밀접촉' 이례적 공개... 파장일'만'이란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언젠가부터 북한이 더 믿음이 가"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트윗을 날렸다"면서 민주당이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즉각 사과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막말' 논란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인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나이를 척척했으면 굳게 척척어. 당'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학영 "박근혜정부, 설악산스케이블카 연20억 특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이학영(사진) 선대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복형부인 한병기씨가 설악산국립공원 내 설치한 케이블카로 매년 20억원씩 배당수익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권력형 특혜버리의 전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에도 정수장학회, 한국민속촌 못지않게 박씨 일가가 공권력을 앞세운 권력형 특혜현장이 있는 것"이라며 "대선 기간 특혜 의혹을 전면조사하고 환수조치를 검토해 특혜를 강원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선득표 2%미만 정당 등록 취소는 위헌 소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헌법 정당법(제44조 3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관(사)은 올해 4·11 총선 후 법에 따라 등록취소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비엔날레 대회' 개막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비엔날레 대표자, 감독, 작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세계비엔날레 대회'가 개막했다.

'중심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비엔날레 사례 발표 등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진다.

美 위안부 기림비에 '말뚝테러'

일본인 소행 추정... 한인사회 강력 반발

미국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크(캘리포니아)의 위안부 기림비에 일본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말뚝테러'가 발생해 한인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는 문구가 쓰여진 스티커가 발견됐다. 미국 당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두 사건의 연관성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가 약속했다.

기림비 건립을 주도했던 한인 권리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옛 한인유권자센터)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20분경(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 바로 옆에 1m 길이의 흰색 말뚝이 박힌 것이 발견됐다.

정가 라운지

김종식 서구청장 민주 복당

2010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종식(사진) 광주 서구청장이 민주통합당에 복당했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청장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그 흐름에서조차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며 "이는 MB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미명 하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흡수·폐지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文 멘토단 이창동·김원중 합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6일 문화예술, 방송연예, 미술문화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된 3차 멘토단 11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창동 김원중

문화예술계에서는 영화감독 이창동 씨와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 유재명 스투디오 미르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보통신 교수 60명 문재인 지지

전남대 양형준, 순천대 여현 교수 등 광주·전남 정보통신 분야 교수 60명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했다.

이들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있어 더 이상의 성장도, 일자리의 창출도 어렵다는 문 후보의 의견과 뜻을 같이한다"며 "국가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가 정보통신 분야 기술에 달려 있다는 문 후보의 정책 구상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매수신장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소득과제(무효상당)
근린시설/근린주택
▶ 동구 소재 동 5층상가주택 대지1561㎡ 건물1440㎡

탐공인중개사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급매물건 다량확보
1) 화정동 4층, 신축, 원룸, 대지 300㎡, 건물 600㎡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건물매도
▶ 오죽4거리 대로변 7층건물 대지 819㎡(269평) 건물 715평

신한공인중개사
수원지구 상가 분양 임대(특별할인)
▶ 롯데마트 앞 국민은행, 신한은행 1층~7층 까지 분양 임대(9월 30일 까지 20% 특별할인)
▶ 병원, 한의원, 학원 특사실, 헬스, 모던 업종가능
▶ 1층~6층 상가분양 임대 ▶ 편의점, 카페, 근생시설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교물건(상가별당매매)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물 873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물 1415평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2,000만원(38억)
▶ 봉곡동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대인동산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 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입니다